



# Graduation

오늘 아주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자연과학대학 학사 89명, 석사 11명이 학위를 수여 받습니다. 입학 후 졸업하기까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울인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졸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맘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교육을 위해 힘써주신 교수님들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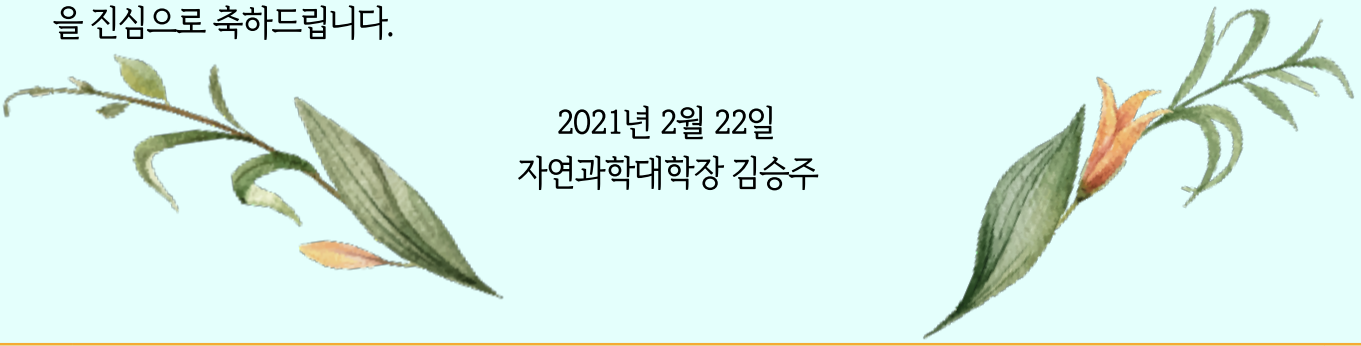
여러분은 입학한 이래 어떤 학생 생활을 보내셨나요? 배움의 즐거움, 성취의 만족감, 교우들과의 따뜻한 추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좌절, 번민하고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삶과 지혜를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며,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졸업식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종종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가급적 많이 배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빨리 변화하는 만큼 평생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배움이 멈춘 순간 사람은 늙습니다. 자연과학자의 기본이 탐구심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사 호기심을 갖고 의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둘째,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당장은 불확실해 보이고 때로는 실패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미래는 항상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길은 움직여야 보입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려 고민하기 보다는, 일단 출발해 보십시오. 남들이 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나, 훨씬 더 훌륭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능 숙달이나 과학지식 역량 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성찰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ICT 기기가 사람들과 물건을 연결하고 로봇이 많은 일을 대체하게 되어 사람끼리 대면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에서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배려해가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화로운 공존'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도 종식될 것입니다. 조만간 아름다운 교정을 거닐며 대학생활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그대들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2월 22일  
자연과학대학장 김승주